

디오도프로, 산란계 설사방지 특효 창립 30주년 ‘포스트바이오틱스 체험 이벤트’ 실시

“산란계 농장에서 설사와 악취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, 포스트바이오틱스 ‘디오도프로’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.”

인천에서 7,000마리 규모의 평사형 A산란계 농장을 운영하는 B대표는 우린네이처(대표 고영규)의 포스트바이오틱스 제품 ‘디오도프로’를 급여한 뒤 “닭들의 활력이 눈에 띄게 살아났고 설사도 크게 줄었다”며 이 같이 밝혔다. B대표는 “사료 6톤에 디오도프로 5kg을 혼합해 급여한 결과 난황색이 선명해지고 흰자 응집력이 강해졌다”라며 “난각도 두꺼워져 파란율이 감소했고 산란율은 92%에서 95%로 상승한 뒤 이를 유지하고 있다”고 설명했다.

디오도프로는 일반 생균제 한계를 넘어선 ‘포스트바이오틱스’ 제품으로, 100% 유효 성분만 함유하고 부형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. 특히



5종 유익균 발효배양액이 80%나 포함돼 있으며, 강력한 항균물질 ‘박테리옌’을 비롯해 효소·복합아미노산·휘발성 지방산 등 유익 성분이 풍부하다.

이 제품은 △장내 환경 개선과 유익균 증대 △성장 촉진 및 증체 향상 △사료 효율 개선과 사료비 절감 △소화 장애·연변·변비 감소 △분변

악취 및 배설량 감소 △면역 증강과 스트레스 완화 등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.

한편 우린네이처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6월 한 달간 ‘포스트바이오틱스 체험 이벤트’를 실시한다. 디오도프로 3포 구매 시 1포를 증정하고, 첫 구매 고객에게 30%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. 또 전 품목 100만 원 이상 구매 시 디오도프로 1포를 추가 증정한다.

문의 : 031-609-2142 양계